

# 장사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식조사

## - 자연장을 중심으로 -

김 연 화(숙명여대 강사)

윤 경 화(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김 경 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기획실장)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가치관 및 생활양식, 그리고 장사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법(2005시행)과 건전가정의례준칙(2008개정)에는 건전가정의례 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가정학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가족의 통과의례로서도 중요한 장사문화이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최근 자연장 등 장사문화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대상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및 태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장사문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사문화에 대한 관심도, 묘지문제에 대한 생각, 서울시추모의 숲, 장사법에 대한 이해, 자연장에 대한 인식, 자연장 시설에 관한 사항, 장례방법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장례문화 홍보 및 장사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및 태도는 임정빈·신산철·이삼식·이필도(2007)의 자연장 모형개발 연구 및 장사문화관련 선행연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한 후 실태조사 17문항, 인구학적 변인 8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미혼과 기혼,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소재 직장인, 주부, 학생 등 678명에게 배포하여 대학생179명, 주부 137명, 직장인 등 279명으로 최종 59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교차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관심정도는 비교적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심각하다는 비율이 82.1%로 나타났다. 둘째, 장례방법은 가족이나 친척의 장사형태는 매장(66.8%), 봉안묘(10.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민은 지차체 운영 추모의 숲과 2008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도 전혀 몰랐다가 매우 높았다. 셋째, 자연장에 대한 인식으로는 자연장이나 수목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모르지만 들어 본적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혀 몰랐다고도 높았다. 이에대한 정보경로는 TV, 주위사람, 홍보물, 인터넷, 신문,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연장 시설로 적합한 장소로는 고인의 고향이나 연고지, 서울시주변 가까운산, 지역공원 순, 시설운영의 주체는 시군구 시설관리공단, 전문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본인의 장사형태는 자연장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수목형 자연장 선호가 높았다. 고인의 표식은 개별표지 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의 장점으로는 친환경적이기에 산림훼손 예방, 묘지 등에 비해 유지관

리가 편리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장을 타인에게 권하겠다는 45.3%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사문화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형제 수, 결혼여부, 학력, 직업, 종교, 소득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장사문화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의 장사문화정책에 기초자료로 되길 바라며 가정학에서의 연구활성화 및 가족과 문화 교과 등에서 양성평등한 건전가정의례, 자연장, 장사문화, 장사법 등의 내용도 교과에 반영하고 학교만이 아니라 대시민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하겠다.